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김은지**

본 연구는 양육과정에서 배우자가 서로의 양육신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인식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Q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신념과 관련된 문헌연구, 사전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거쳐 31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국내에 거주하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36명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PQ Method 2.35로 Q Sorting하였다. 강하게 긍정한 문항, 강하게 부정한 문항 그리고 유형별 식별 문항을 근거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은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 제2유형은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 제3유형은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 제4유형은 혼란·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배우자가 가진 양육신념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인식 유형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부 간의 양육신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일관성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양육, 양육신념, 미취학 아동, 인식, Q방법론

논문제출일: 2025. 10. 31. 최종심사일: 2025. 11. 24. 게재확정일: 2025. 12. 26.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5374)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Eun Ji,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46241. E-Mail : ep.kim@pusan.ac.kr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다양화 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관 일치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은 단순한 생활 태도의 일치를 넘어서 다양한 선택과 의사결정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 기준이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간의 가치관은 양육방식과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로서 자녀의 성장환경과 발달 결과에 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주정호, 2014; McGillcuddy-De Lisi & Sigel, 1995; Miller, 1988).

양육(parenting)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때까지 잘 돌보아 키우는 일’로 정의되지만(한영식, 2020), 학문적 관점에 따라 그 개념적 초점은 다르게 제시된다. 사회학에서는 양육을 사회화 과정의 핵심으로 보고, 인류학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행동양식의 전수로 보며, 심리학에서는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유안진, 1989; Brooks, 2013).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점은 양육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노보람·최나야, 2018; 이소담·신나나, 2018; 김진영·박승민, 2012). 이처럼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신념 확립과 올바른 양육태도를 기르는 것은 부모역할에 있어 중요하게 강조된다(정은미, 2017; 이수기·박희숙, 2010).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적용되는 가치관인 양육신념(parenting belief)은 자녀 발달을 이끄는 인지적 틀이자,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다. 양육신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80년대 사회인지심리학의 확산으로 본격화되었다(Miller, 1988). Sigel(1985)은 양육신념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적 구조’로 정의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내적 기준으로 보았다. Kohn(1969), Schaefer와 Edgerton(1985)은 양육신념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관과 동일하다고 보고 부모의 신념이 실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는 양육신념이 단순히 양육의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인지능력이 작용하는 사고의 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희선·김소영, 2013). 즉, 양육신념은 단순한 태도나 선호가 아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가치 체계와 행동양식을 매개하는 핵심적 요인이며,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양육태도를 취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그 일관성과 질을 결정짓는 인지적 근간이 된다(하순련·서현아, 2013).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부모는 서로 다른 성장배경, 문화적 경험, 사회적 가치관 등 각자 고유한 경험과 배경을 가지므로 양육신념에 있어 완벽한 일치를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다. 양육신념의 불일치는 때때로 양육방식의 차이로 이어져 부부 갈등을 유발하고, 가정 내에서 갈등, 혼란,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대립을 초래(문영경·박선영, 2020)하여 부부 관계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또한 양육신념의 불일치는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의 불일치로 이어지고 자녀에게 혼란을 유발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노지형·송현주, 2012; 채영문, 2009; Schwartz & Dodge & Petti & Bates, 1999; Shaw & Winslow & Flanagan, 1994).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잣은 의견 불일치와 논쟁은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노지형·송현주, 2012). 아동은 부모의 갈등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여기기 쉽고,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장기적으로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나 공격성, 반항과 같은 외면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haw et al., 1994). 또한 부모의 논쟁을 자주 목격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성향이 강해지며, 이는 아동기 초기부터 사회불안을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Schwartz et al., 1999). 이처럼 양육신념 불일치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한다(허재홍, 2006).

반면에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일치 정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발달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다(박성애·강수정, 2024). Lindsey와 Mize(2001)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행동 일치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간 양육 일치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불안이나 위축 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채영문, 2009), 부모의 양육 일치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교사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이경신, 2014). 이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 일관성이 외부에서의 관계 형성 시 안정성에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 간 양육신념이 유사하고, 그로인해 양육태도나 양육방법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가능성의 가장 크고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미리·

신유림, 2013; Amato & Fowler, 2002). 이 시기의 부모 양육태도와 행동은 자녀의 기질, 인지 그리고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결정적인 기반을 형성한다(남궁령, 2015; 최경미 · 김혜순, 2010).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기의 아이들은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서조절능력과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되고(박윤정 · 최미경, 2016), 자아존중감과 타인 존중감, 관대함 등의 특성을 보이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희 · 최양미, 2022). 또한 유아기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최윤숙, 2021; 김금희, 2020; 김영실 · 변지원 · 김익균, 2020; 도미향 · 김응자 · 김경미, 2020). 이처럼 부모의 양육신념 일치 여부는 아이에게 혼란과 불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혼란을 겪게 만든다(이지연, 2024).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과 그 불일치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서로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고 일치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자녀의 건강한 심리 및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양육신념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부부가 서로의 양육신념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갈등이 부부 간에 당연히 거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부부간의 양육신념 일치 여부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부모가 가진 서로의 양육신념이 일치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서로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양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자녀의 더 건강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서로의 양육신념을 바라보는 인지 방식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 신념과 같은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연구방법(김홍규, 2008; Brown, 1980; McKweon & Thomas, 2013; Stephenson, 1980)으로서 비슷한 주관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형화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김애림 · 2020; 정희정 · 김애림 · 주하나 2020; 주하나, 2020; McKweon & Thomas, 2013). Q방법론은 일반적으로 Q모집단 구성, Q표본 구성, P표본 선정, Q표본 분류, 자료분석으로서 요인추출의 절차를 거친다(오현규 · 이숙종, 2021; Young & Shepardson, 2018).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5단계 절차를 거쳤다. 자세한 연구절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절차 5단계

단계	연구절차	연구내용
1	Q모집단 구성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
		• 사전 설문조사(200명), 심층면담(10명)
		• Q모집단 36문항 개발
2	Q표본 구성	• 전문가 3명 검토 • Q표본 최종31문항 선정
3	P표본 선정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36명
4	Q표본 분류	• Q표본 분류표에 의한 분류 및 양극단 이유 서술
5	자료분석	• PQ Method 2.35 ver으로 Q유형 분석

2. Q모집단 구성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3가지 절차에 따라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첫째, 양육신념에 관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여 진술문을 정리하였다.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로는 양육신념(한영식, 2020), 양육가치(김미정 · 이순형, 2004), 양육태도(노지형 · 송현주, 2012; 허재홍, 2006)를 키워드로 한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에 거주 중인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육아커뮤니티(마○○)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이 온라인 육아커뮤니티는 아이의 건강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중인 것이 확인되는 부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육아를 하고 있는 자녀의 발달 단계(예: 월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구분되어 있다. 이에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을 통해 연구목적, 연구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온라인 창을 활성화하여 익명으로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이 혼합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Q모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인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문항에 응답한 200명의 응답만 설문조사 완료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27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셋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연구목적, 연구과정 등을 안내한 후 이에 동의하는 응답자 10명을 모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온라인 ZOOM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60분 내외의 개별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0개의 문항을 추가 개발하여 P모집단 37개를 개발하였다. 이후 작성된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 1개를 제외하고,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는 문항 36개를 Q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내용

구분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거주 중인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00명 • 온라인 설문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유무, 자녀의 수, (첫째)자녀의 나이 2. 양육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형태 • 현재 가정에서 주요 양육자 • 아이에 대한 ‘희생’의 개념 • 내가 생각하는 양육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자질 • 아이의 기질, 선호도, 정서변화 파악 정도 • 아이와의 대화방식, 반응태도

심층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거주 중인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0명 • 온라인 ZOOM 또는 유선을 활용한 60분 내·외의 개별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 대한 다양한 체험(또는 경험) 개방성 • 아이에 대한 소비관 • 아이에 대한 교육관 3. 나의 배우자는 2번에 포함된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4. 배우자와 '양육'을 주제로 대화의 빈도, 대화 방식 등 5. 배우자와 '양육'을 주제로 대화할 때 드는 기분 6. 배우자와 양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

3. Q표본 선정

Q모집단 36개를 개념, 대상, 요인, 방법 등을 유목화한 후,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Q방법론의 타당도 검증에 필요한 과정이다(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3). 전문가는 교육학 전공자 또는 아동학 전공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모두 Q방법론 연구 유경험자이며 교육현장 경험 10~15년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총 36개의 문항을 각 문항별로 1~5점으로 적절한지 먼저 조사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받았으며, 적절하지 않거나, 문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문항별로 수정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문항에 대해 자유의견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전문가 특성 요약

No.	성명	전공	현재 주요 연구분야	현장경력
1	H○E	교육학	유아교육, 상담심리 등	15년 이상
2	J○W	교육학	초등교육, 교육심리 등	15년 이상
3	H○K	교육학	대학교육, 학습심리 등	10년 이상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중복되거나 의미가 모호한 진술문은 수정 및 삭제하고, 새로운 진술문을 추가하였다. 수정된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재검토 받은 후, 최종 진술문인 Q표본을 31개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Q표본(진술문)

No	진술 문항
1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갈등이 있어도 내 양육신념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2	우리 부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혼매는 경우가 있다.
3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도 이해하지만, 내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4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내 양육신념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배우자와 함께 양육신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양육법을 찾아간다고 느낀다.
6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어렵고 나의 양육신념과 자주 충돌한다고 느낀다.
7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
8	나는 내 배우자가 양육에 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
9	나는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 견해를 자주 설명하는 편이다.
10	나의 배우자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므로 양육도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
11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워서 자주 충돌하는 편이다.
12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13	배우자가 주변 사람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며 양육 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14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조율해서 중간지점을 찾는 편이다.
15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예: 책읽기, 전문가 의견 구하기, 주변 양육경험자 노하우 듣기 등)하는 것 같다.
16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양육관련으로 다툴 때마다 결국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던 기억 때문에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17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에 불만족스럽고 실망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의 양육신념을 선호(선택)하는 편이다.
18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위해,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편이다.
19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2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우면 다투기 싫어서 수용하는 편이다.
21	나의 배우자가 양육신념이 뚜렷(확고)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한다.
22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자주 다투게 되고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23	나의 배우자는 SNS나 TV매체를 통해서 들은 양육정보만 따르는 것 같아서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24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
25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No	진술 문항
26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양육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없다.
27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고 따르는 편이다.
28	나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나도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수용하기 어렵다
29	나와 배우자는 서로 양육에 관해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양육자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양육신념대로 하는 편이다.
3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보다는 나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1	내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4. P표본 선정

Q방법론에서 P표본 선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 내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20~60명(김홍규, 2008), 30~50명(길병욱 · 이소희 · 이송이 · 정희정, 2020)이 적절한 P표본 수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P표본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36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P표본은 부 14명(38.9%), 모 22명(61.1%)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 1명(2.8%), 30대 24명(66.7%), 40대 10명(27.8%), 50대 1명(2.8%)이었다.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다 30명(83.3%), 없다 6명(16.7%)로 나타났다. 자세한 P표본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P표본 특성

구분		부	모	합계
연령 (만나이 기준)	20대	-	1명(2.8%)	1명(2.8%)
	30대	8(22.2%)	16명(44.4%)	24명(66.7%)
	40대	5명(13.9%)	5명(13.9%)	10명(27.8%)
	50대	1명(2.8%)	-	1명(2.8%)
직업여부	있다	13명(36.1%)	17명(47.2%)	30명(83.3%)
	없다	1명(2.8%)	5명(13.9%)	6명(16.7%)
합계		14명(38.9%)	22명(61.1%)	36명(100%)

P표본별 정보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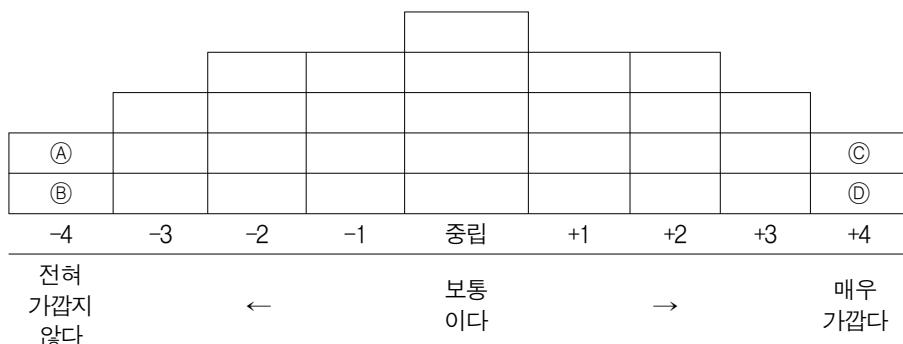
<표 6> P표본 정보

P표본번호	성명	성별	(만나이)연령대	직업여부
P1	최*영	여(모)	30대	○
P2	이*협	남(부)	30대	○
P3	전*원	남(부)	30대	○
P4	손*호	남(부)	40대	○
P5	황*경	여(모)	40대	○
P6	김*조	여(모)	40대	○
P7	오*안	여(모)	40대	○
P8	이*서	남(부)	40대	○
P9	김*우	여(모)	30대	○
P10	김*서	남(부)	50대	○
P11	박*온	여(모)	40대	○
P12	배*우	여(모)	40대	-
P13	김*서	남(부)	30대	○
P14	김*우	여(모)	30대	○
P15	김*하	여(모)	20대	○
P16	배*은	남(부)	40대	○
P17	김*이	남(부)	30대	○
P18	김*이	여(모)	30대	○
P19	김*온	여(모)	30대	○
P20	박*담	여(모)	30대	○
P21	비*솔	남(부)	40대	○
P22	김*경	여(모)	30대	○
P23	김*빈	여(모)	30대	○
P24	배*규	남(부)	30대	○
P25	박*온	여(모)	30대	-
P26	박*정	남(부)	30대	○
P27	강*라	남(부)	30대	○
P28	정*훈	여(모)	30대	○
P29	박*원	여(모)	30대	-
P30	김*수	여(모)	30대	-
P31	김*준	여(모)	30대	○
P32	이*후	남(부)	30대	○
P33	이*서	남(부)	40대	-
P34	장*윤	여(모)	30대	○
P35	정*라	여(모)	30대	○
P36	이*표	여(모)	30대	-

5. Q표본 분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줌으로 실시하며 실시간으로 Q분류 방법을 설명하였고, Q분류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추가 공유한 다음 Q표본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Q표본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진술문에 대해서 (+4~+1)긍정, (0)중립, (-1~-4)부정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문항 2개와 부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부정하는 문항 2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Q표본 분류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3] Q표본 분류표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36명의 자료를 PQ Method 2.35를 사용하여 코딩하고 Q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추출은 센트로이드(Centroid) 방식으로 추출하여 아이겐밸류(Eigen value)가 1이하의 값을 가지더라도 연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요인으로 추출(길병옥 외, 202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인회전에서는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3개 요인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최종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산출된 결과 중 아이겐밸류 1이상을 기준으로 현저한 낙차가 발생되는 지점(김홍규, 2008)과 설명력(변량)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유형 4개를 최종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

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유형별 Q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한 다음 각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식 유형 분류

본 연구의 목적인 양육신념에 대한 배우자와의 관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총 3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고, 최종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인원 중 4명은 아이겐밸류(Eigen value)의 유의미성이 없어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제1유형은 20명, 제2유형은 6명, 제3유형은 3명, 제4유형은 3명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설명력(변량, 소수점 생략)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34%, 제2유형은 13%, 제3유형은 8%, 제4유형은 6%로 전체 6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아이겐밸류와 변량은 <표 7>과 같다.

<표 7> 유형별 인지가중치와 변량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아이겐밸류	12.3502	4.8300	2.9501	2.0444
변량(%)	34	13	8	6
누적 변량(%)	34	48	56	62
P표본의 수(명)	20	6	3	3
누적 P표본의 수(명)	20	26	29	32

유형별 P표본의 분포와 아이겐밸류는 <표 8>과 같다.

<표 8> 유형별 P표본의 분포 및 요인별 인자가중치(factor loading)

P표본번호	인자가중치	P표본번호	인자가중치
제1유형			
P1	.6084	P24	.8862
P4	.8119	P25	.7728
P5	.6676	P27	.6784
P7	.5126	P29	.7447
P9	.8246	P30	.7681
P13	.7314	P31	.6919
P17	.7533	P32	.7387
P18	.5788	P33	.7384
P19	.8138	P34	.5755
P23	.8847	P36	.7301
제2유형		제3유형	
P2	.6069	P12	.5491
P11	.7624	P16	.7390
P14	.8015	P28	.7063
P22	.5230	제4유형	
P26	.5383	P15	.4885
P35	.7189	P20	.7633
		P21	.5872

Q방법론에서 유형 간 상관관계는 각 유형의 독립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상관관계는 -.0461 ~ .2233으로 나타났다. 자세하게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2195, 제1유형과 제3유형은 .1005, 제1유형과 제4유형은 -.0645로 나타났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461, 제2유형과 제4유형은 .2233이었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은 -.1300으로 나타났다. 유형 간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표 9> 유형 간 상관계수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1유형	-			
제2유형	-.2195	-		
제3유형	.1005	-.0461	-	
제4유형	-.0645	.2233	-.1300	-

2. 인식 유형별 특성

1) 제1유형 :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

제1유형은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신뢰를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잣은 소통과 협력적인 태도로 신념을 조율해나가는 합의적 의사결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유형인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은 전체 참여자의 34%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1유형에 강하게 긍정, 강하게 부정한 문항은 <표 10>과 같고, 식별문항은 <표 11>과 같다.

<표 10> 제1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문항	5*	나는 배우자와 함께 양육신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양육법을 찾아간다고 느낀다.	1.874
	14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조율해서 중간지점을 찾는 편이다.	1.448
	12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1.422
	10*	나의 배우자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므로 양육도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	1.402
	9	나는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 견해를 자주 설명하는 편이다.	1.208
	15*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예: 책읽기, 전문가 의견 구하기, 주변 양육경험자 노하우 듣기 등) 하는 것 같다.	1.196
	19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예: 책읽기, 전문가 의견 구하기, 주변 양육경험자 노하우 듣기 등) 하는 것 같다.	1.137
	8*	나는 내 배우자가 양육에 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	-1.639
부정 문항	6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어렵고 나의 양육신념과 자주 충돌한다고 느낀다.	-1.512
	11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워서 자주 충돌하는 편이다.	-1.402
	13	배우자가 주변 사람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며 양육 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1.198
	17*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에 불만족스럽고 실망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의 양육신념을 선호(선택)하는 편이다.	-1.062
	22*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자주 다투게 되고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1.054

* p<.01 / *은 식별문항을 의미

<표 11> 제1유형 식별문항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1	2	3	4			1	2	3	4
긍정 문항	5	1.87*	0.16	-0.38	0.19	부정 문항	24	-0.29*	1.10	1.27	-2.08
	10	1.40*	-0.86	-0.12	-0.95		22	-1.05*	0.59	-0.08	0.42
	15	1.20*	-1.89	-0.94	-1.30		17	-1.06*	0.80	0.07	-0.11
	7	0.04*	-2.04	-1.10	-1.24		8	-1.64	1.23	-0.41	0.81

강하게 긍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배우자와 함께 양육신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양육법을 찾아간다고 느낀다($z=1.874$)’,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조율해서 중간지점을 찾는 편이다($z=1.448$)’, ‘나의 배우자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므로 양육도 그렇게 할 것이라 믿는다($z=1.402$)’,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z=1.196$)’와 같다.

강하게 부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은 ‘나는 내 배우자가 양육에 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z=-1.639$)’,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에 불만족스럽고 실망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의 양육신념을 선호(선택)하는 편이다($z=-1.062$)’, ‘나와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자주 다투게 되고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z=-1.054$)’와 같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신뢰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갈등상황에 부딪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조율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해 온 훈육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절충안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대화에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는 비슷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다”

“내 배우자는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다”

“아이는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생략) 실제로 내 배우자는 육아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다”

제1유형은 육아를 함께하는 공동의 영역으로 여기고, 배우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내 배우자는 양육에 무관심하다거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갈등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2유형 :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

제2유형은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양육신념을 우선시하고 따르기를 원하며 갈등상황에서도 상호 조율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2유형인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은 전체 참여자의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2유형에 강하게 긍정, 강하게 부정한 문항은 <표 12>와 같고, 식별문항은 <표 13>과 같다.

<표 12> 제2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문항	1*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갈등이 있어도 내 양육 신념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2.022
	3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도 이해하지만, 내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따라 주기를 바란다.	1.619
	8	나는 내 배우자가 양육에 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	1.228
부정 문항	7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	-2.035
	15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예: 책읽기, 전 문가 의견 구하기, 주변 양육경험자 노하우 듣기 등) 하는 것 같다.	-1.892
	16*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양육관련으로 다 툴 때마다 결국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던 기억 때문에 배우자 의 양육신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1.711
	25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123

* p<.01 / *은 식별문항을 의미

<표 13> 제2유형 식별문항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1	2	3	4			1	2	3	4
긍정 문항	1	-0.07	2.02*	-0.06	-0.29	부정 문항	30	0.53	-0.14*	2.18	1.17
	4	-0.04	1.18*	-1.72	-0.69		16	0.86	-1.71*	-0.63	1.04

강하게 긍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갈등이 있어도 내 양육신념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z=2.022$)’,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도 이해하지만, 내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따라주기를 바란다($z=1.619$)’, ‘나는 내 배우자가 양육에 관해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낀다($z=1.228$)’와 같다.

강하게 부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은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z=-2.035$)’,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양육관련으로 다툴 때마다 결국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던 기억 때문에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z=-1.711$)’,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z=-1.123$)’와 같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육아를 함에 있어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수용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오히려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수용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주 양육자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보다는 내가 아이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중간생략) 내가 배우자보다 더 양육을 잘하고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육아에 대해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는 아이의 시기별 발달내용을 잘 모른다. (중간생략) 평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배우자보다 내가 더 아이에게 의견 제시도 잘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맞추기 때문이다”

제2유형은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보다는 자신의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수용하고 따르기를 원하며 배우자 의견보다는 자신의 양육신념을 우선시하고 관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3유형 :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

제3유형은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신뢰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양육에 관해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독자적 양육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3유형인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은 전체 참여자의 8%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3유형에 강하게 긍정, 강하게 부정한 문항은 <표 14>와 같고, 식별문항은 <표 15>와 같다.

<표 14> 제3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문항번호	문항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문항	3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보다는 나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보다는 나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180
	31*	내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내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1.979
	29*	나와 배우자는 서로 양육에 관해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양육자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양육신념대로 하는 편이다.	나와 배우자는 서로 양육에 관해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양육자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양육신념대로 하는 편이다.	1.635
	28*	나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나도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나도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수용하기 어렵다	1.434
	24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	1.267
부정 문항	4*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내 양육신념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내 양육신념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716
	11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워서 자주 충돌하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워서 자주 충돌하는 편이다.	-1.371
	9*	나는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 견해를 자주 설명하는 편이다.	나는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 견해를 자주 설명하는 편이다.	-1.330
	6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어렵고 나의 양육신념과 자주 충돌한다고 느낀다.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어렵고 나의 양육신념과 자주 충돌한다고 느낀다.	-1.187
	7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	-1.098

* p<.01 / *은 식별문항을 의미

<표 15> 제3유형 식별문항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1	2	3	4			1	2	3	4
긍정 문항	31	0.27	-0.29	1.98*	-0.05	부정 문항	20	-0.88	-0.98	-0.08*	1.17
	29	-0.04	-0.05	1.63*	-0.26		8	-1.64	1.23	-0.41*	0.81
	28	-0.65	-0.18	1.43*	0.00		9	1.21	0.66	-1.33*	0.64
	26	-0.88	-0.39	0.69*	-1.03		4	-0.04	1.18	-1.72*	-0.69

강하게 긍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을 살펴보면 ‘내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기 어렵다($z=1.979$)’, ‘나와 배우자는 서로 양육에 관해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양육자는 나이가 때문에 그냥 나의 양육신념대로 하는 편이다($z=1.635$)’, ‘나의 양육신념이나 양육방식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나도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수용하기 어렵다($z=1.434$)’,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z=1.267$)’와 같다.

강하게 부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은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내 양육신념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z=-1.716$)’,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워서 자주 충돌하는 편이다($z=-1.371$)’, ‘나는 더 나은 양육을 위해 배우자에게 내 견해를 자주 설명하는 편이다($z=-1.330$)’,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z=-1.098$)’와 같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배우자와 양육에 관해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또한 자신의 양육신념이나 방식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신 또한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가 어렸을 때 육아 관련으로 다툼을 너무 많이 했었다.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 지금 싸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편이다”

“배우자는 아이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나는 아이의 경험을 우선시한다. 배우자가 계속 안전을 고집하니까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이 계속 싸우게 되는

포인트이다. 아무리 배우자에게 설명해도 안전을 고집한다. 조율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기반하여 아이를 양육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적합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일 외에는 설명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편이다”

제3유형은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통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경험 누적으로 인해 현재는 배우자와 육아에 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육아에 관한 일은 배우자와 논의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4유형 : 혼란·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

제4유형은 나와 배우자 모두 양육에 관한 신념이 불분명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그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비일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란 · 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유형인 ‘혼란 · 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은 전체 참여자의 6%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4유형에 강하게 긍정, 강하게 부정한 문항은 <표 16>과 같고, 식별문항은 <표 17>과 같다.

<표 16> 제4유형이 강하게 긍정한 문항이거나 강하게 부정한 문항

구분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우리 부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해매는 경우가 있다.	1.581
	3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도 이해하지만, 내 양육신념을 배우자가 따라 주기를 바란다.	1.499
	2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우면 다투기 싫어서 수용하는 편이다.	1.175
긍정 문항	3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보다는 나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175
	16*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양육관련으로 다툴 때마다 결국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던 기억 때문에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1.045
	18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위해,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편이다.	1.004

구분	문항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부정 문항	24*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	-2.080
	25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1.534
	15	나의 배우자는 더 나은 양육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예: 책읽기, 전문가 의견 구하기, 주변 양육경험자 노하우 듣기 등) 하는 것 같다.	-1.300
	7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	-1.243
	21	나의 배우자가 양육신념이 뚜렷(확고)해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한다.	-1.238
	13	배우자가 주변 사람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며 양육 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1.139
	26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양육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없다.	-1.029

* p<.01 / *은 식별문항을 의미

<표 17> 제4유형 식별문항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구분	문항 번호	유형별 표준점수			
		1	2	3	4			1	2	3	4
긍정 문항	20	-0.88	-0.98	-0.08	1.17*	부정 문항	24	-0.29	1.10	1.27	-2.08*
	16	-0.86	-1.71	-0.63	1.04*		-	-	-	-	-

강하게 긍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혼매는 경우가 있다.(z=1.581)’,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받아들이기(존중하기) 어려우면 다투기 싫어서 수용하는 편이다(z=1.175)’, ‘나는 배우자와 양육신념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양육관련으로 다툴 때마다 결국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던 기억 때문에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z=1.045)’,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을 이해(존중)하기 위해,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편이다(z=1.004)’와 같다.

강하게 부정한 문항과 식별문항은 ‘나의 배우자는 양육신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대체로 나의 양육신념을 따르는 편이다(z=-2.080)’, ‘나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이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z=-1.534)’, ‘나는 배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그 양육신념을 따를 때가 많다(z=-1.243)’,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양육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없다(z=-1.029)’와 같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나와 배우자 모두 뚜렷한 양육신념이 없고, 갈등

상황은 회피하며 아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맞춰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양육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래도 배우자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따른다”

“배우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간생략) 모를 때는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추천하는 방법을 따른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간생략) 배우자가 아이 친구 부모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배우자를 따르는 것 같다”

제4유형은 양육에 관한 뚜렷한 신념이 없고,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비일관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배우자가 서로의 양육신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모의 양육신념은 자녀에게 일관된 양육방법과 태도를 보이게 하여,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에 부모가 서로의 양육신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고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양육신념 일치를 위한 해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Q표본을 선정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P표본에게 Q표본 분류를 실시하였고, 그 응답결과를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이고, 제2유형은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이며, 제3유형은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혼란·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제1유형인 ‘상호협력적 신념조율형’은 전체 참여자의 34%의 설명력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배우자와의 신념 차이를 개방적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합의를 중시하는 유형이다. 배우자와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공동의 양육 방향을 설정하려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일관성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제1유형의 부모들은 배우자를 신뢰하며 양육을 공동의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소통을 통합 합의는 양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부부 간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 나아가 문제해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mato & Fowler, 2002). 부모의 일관된 양육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 흥미와 노력 지속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정혜원·김예림·박소영, 2020; 조제성, 2020). 주의집중력과 ADHD와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소은, 2007; 김숙령·이선희, 2006). 본 연구의 대상인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제1유형의 양육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향후 그 자녀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예측해볼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제1유형은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부부가 공동 양육 철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돋는 전략적 개입 모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유형인 ‘자기중심적 우위지향형’은 자신의 양육신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배우자가 이를 수용하고 따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양육신념을 우위에 두고 배우자의 신념을 상대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아 자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유형의 부모들은 배우자의 신념보다 자신의 양육신념이 더 타당하다고 확신하며,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권위적 양육태도나 높은 통제 지향성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Kohn, 1969; Brooks, 2013). 이러한 인식은 부부 관계의 상호성을 저하시켜 배우자를 수동적 참여자로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양육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성이 있다.

제2유형은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역할과 강조하는 가치관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모 중에서 한쪽이 강조하는 점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묘연(2000)은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에서 아동의 지능이 개발되고 증가하는 반면, 통제적이고 긴장된

가족 분위기에서는 아동의 사고능력의 발달이 제한되거나 억제된다고 보고하였고, 손남숙과 이숙희(2008)은 부모의 양육 방향이 서로 다를 경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의 양육 참여나 공동육아를 강조하고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와 모의 합의된 양육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조부월, 2009). 따라서 제2유형의 부모에게는 상호존중적 의사소통 훈련과 양육 파트너십 인식 재구조화가 필요한 개입 방향으로 제안된다.

제3유형인 ‘비상호작용적 독립실행형’은 배우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각자 독립적으로 양육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배우자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소통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보였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각자의 신념대로 독립적인 양육을 실행하며, 이는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이중 양육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체계이론의 병렬적 역할 분리와 유사한 구조로 부부 간 협력의 부재가 자녀에게 불안정한 정서적 신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양육 일치도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부와 모가 각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부모가 함께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된다(조부월, 2009; Maccoby & Martin, 1983). 부부가 양육을 함께 하고 있다는 지각이 없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비난한다는 지각은 유아의 정서지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종훈·성지현, 2013).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와 모가 서로 일치하며 일관된 공동의 육아를 보여줄 때, 자기 행동이나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통제하여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김선화, 2010). 반면, 부와 모가 양육에서 불일치한 각각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받기 쉬우며(Coe, 1972)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지 못해 부적응을 야기하기 쉽다고 보고된다(Perkins, 1974). 제3유형은 이전 갈등의 누적, 협력적 관례로의 회복 회피 또는 의사소통 기술 부족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유형의 부모를 대상으로는 정서적 재접근을 통해 양육을 들러싼 정서적 분리가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애착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4유형인 ‘혼란·갈등회피적 비일관 수용형’은 명확한 신념체계를 갖지 못한 채 갈등을 회피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일관성 없이 수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자신만의 뚜렷한 양육신념을 갖지 못해 혼란을 느끼면서도 양육이라는 과제 앞에서 혼란을 피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일관적으로 양육방법과 태도를 수용한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에 취약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부모 간 양육방식의 일관성이 낮을 경우, 자녀는 혼란을 경험하고 불안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일관된 양

육을 할 경우 자녀는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불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Hudson & Aronson, 2005).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은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판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보고된다(손남숙 · 이숙희, 2008; 유진희, 2006; 이외영, 2002). 제4유형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이 없거나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적 불안정성이 높고 의사결정의 주체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자녀에게 모호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무지나 낮은 자기효능감, 혹은 과거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 갈등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제4유형은 부모교육에서 양육신념 명료화와 감정표현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육신념의 일치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 즉 부부가 서로의 배우자가 가진 양육신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을 탐색하였다.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수용방식’이라는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의 개별적인 양육신념 연구의 영역을 가족 관계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인식유형은 단순한 신념 차이가 아니라, 가족 내 의사소통 구조와 관계적 태도의 반영임이 밝혀졌다. 이는 각 유형들이 단순한 인식 차이를 넘어서 가족 내 상호작용과 심리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올바른 양육신념을 갖는 것 못지않게 서로의 양육신념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상호작용을 통해 조율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형성에 중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향후 부모 양육지원 정책과 교육심리적 개입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신념 불일치로 인한 양육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배우자의 양육신념에 대한 인식 유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본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량적 검증을 통해 각 유형의 분포와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를 쌍 단위로 연구한다면, 부부간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배경, 자녀의 발달 단계 등의 변인을 통합하여 연구한다면 양육신념 유형과 가족 역동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Q표본의 문항이 상호배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설문조사 응답자가 이해하기에 명확성이 다소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이에 추후 설문조사 시에는 상호배타적 내용을 고

려하려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유형을 기반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다면 한층 더 성숙한 부모가 됨은 물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길병옥 · 이소희 · 이송이 · 정희정(202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금희(202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동권리준중 인식 정보 및 프로그램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5-27.
- 김미정 · 이순형(2004).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8(2), 299-323.
- 김선화(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 이선희(2006). 가정환경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인간발달 연구**, 13(1), 1-13.
- 김애림(2020). Q방법론을 활용한 아동복지의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실 · 변지원 · 김익균(2020). 유아교사의 전문성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부모교육연구**, 17(4), 51-69.
- 김종훈 · 성지현(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5.
- 김진영 · 박승민(2012). 기독교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2), 115-140.
- 김홍규(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궁령(2015). 어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2), 157-182.
- 노보람 · 최나야(2018). 가정환경 자극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5세 유아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일반 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661-686.
- 노지형 · 송현주(2012).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가 아동의 우울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1-15.
- 도미향 · 김응자 · 김경미(2020). 가정위탁 부모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29-50.
- 문영경 · 박선영(2020).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한국 아동학회지**, 41(3), 95-110.
- 박성애 · 강수정(202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소명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공동양육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2(2), 27-44.
- 박윤정 · 최미경(2016).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1), 177-178.
- 손남숙 · 이숙희(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7.
- 오현규 · 이숙종(2021). 조절초점을 반영한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 유형 분석. **주관성 연구**, 57, 101-126.

- 유안진(1989).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 유진희(2006). 부모역할이 유아의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최양미(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품앗이 참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279-294.
- 이경신(201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일치여부에 따른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신유림(2013). 취업모와 비취업모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유아 기질, 환경적 지지의 효과. **육아정책연구**, 7(1), 1-20.
- 이소담·신나나(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불안: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역할. **인간발달연구**, 25(2), 79-97.
- 이소은(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과 주의집중력. **아동학회지**, 28(2), 71-89.
- 이수기·박희숙(2010).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과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25-639.
- 이외영(2002).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24).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사회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선·김소영(2013).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놀이성과자기조절간의 관계: 정서발달 양육신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3(4), 237-256.
- 정은미(201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14(1), 5-19.
- 정혜원·김예림·박소영(2020). 초중학생의 그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 별점화 회귀모형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73-693.
- 정희정·김애림·주하나(2020). 코로나위기에서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유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359-1381.
- 조부월(2009).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일치유형 및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4), 93-119.
- 조제성(2020).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점수, 휴대폰 의존,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10(3), 83-103.
- 주정호(2014).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태도가 유아의 다중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하나(2020). 코로나사태에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학부모연구**, 7(4), 23-48.
- 채영문(2009). 부부의 애착유형과 자녀양육방식의 결합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미·김혜순(2010).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261-275.
- 최윤숙(2021).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3), 71-89.

- 하순련 · 서현아(2013).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31~156.
- 한영식(2020). 부모양육신념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홍(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Akhtar-Danesh, N., Baumann, A., & Cordingley, L.(2003). Q-methodology in nursing research: A promising method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Western Journal of Nursing*, 30(6), 759~773.
- Amoto, P. R., & Fowler, F.(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703~716.
- Brooks, J. B.(2013). *The Process of Parenting*. NY: McGraw-Hill.
- Brown, S. R.(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oe, W.C.(1972). *Challenge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cisco: Rinlnant Press.
- Houston, A. C., & Aronson, S. R.(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 467~482.
- Kohn, M. L.(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Dorsey Press.
- Lindsey, E. W., & Mize, J. (2001). Contextual Differences in Parent - Child Play: Implications for Children's Gender Role Development. *Sex Roles*, 44, 155~176.
- Maccoby, E. E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tion*, In P.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Y: John Wiley and Sons.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F.(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t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4,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Kweon, B. F., & Thomas, D. B.(2013). Q Methodology. Newbury Park, CA:Sage.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
- Perkins, H.V.(1974).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 Schaefer, E. S., & Edgerton, M.(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9).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Child Development*, 70(4), 1007 - 1022.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1994). Early risk factors and pathways in the

-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8), 1349 - 1362.
-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345-37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phenson, W.(1980). Newton's Fifth Rule and Q methodology: Application to educat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5(10), 882-889.
- Young, J. M., & Shepardson, D. P.(2018). Using Q methodology to investigate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geosciences. *Science Education*, 102(1), 195-214.

Abstract

Perceptual Typologies of Spouses' Parenting Beliefs

Kim, Eun-Ji*

This study explores how parents perceive their spouse's parenting beliefs and identifies typologies of these perceptions using Q methodology. Q-population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 preliminar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and 31 finalized Q-statements were validated by experts. The P-sample included 36 South Korean parents of preschool-aged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sing PQMethod 2.35 through a standard Q-sorting procedure. Four perception types emerged: Mutual Belief–Coordination, Self–Centered Dominance–Oriented, Non–Interactive Independent–Execution, and Confused and Conflict–Avoidant Inconsistent Acceptance. These findings enhance understanding of how couples interpret each other's parenting beliefs and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promoting consistent parenting environments that support children's healthy development.

Keywords : parenting, parenting beliefs, preschool child, perception, Q-methodology

*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Professor